

박 물 관 속 에 갇 힌

국 악 을

풀 어 놓 자 !

대 중 속 의 국 악 이 야 기 를 쓰 고 있 는 현 경 채 씨



글을 쓰는 행위는 작은 우주를 건설하는 일과 같다. 또한 그것은 세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은 불을 품고 사는 여자다. 그녀가 연주하는 해금 음악이 그렇듯이. 필이 꽃혀 연주하는 해금산조 음악을 들어본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는 부분이다. 서슬이 살아 있는 활대가 그렇고, 죄었다 풀었다 하는 왼손의 농현이 그렇다. 몸속 저 밑에서 꿈틀거리는 열정을 두 줄의 악기로 표현하면서 ‘몸으로 해금을 켜는 연주자’라는 칭호를 얻은 강은일,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하는 매력으로 무대 위에서 번득인다. 수많은 해금 연주자들 가운데, 유독 강은일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해답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음악의 실험 정신과 진보에 대한 갈망에서 찾았다. 그녀는 대중과의 호흡을 위해 재즈의 명인 김대환과 신관웅, 이정식 등과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연주했으며, 일본의 재즈하우스 무대에 오르는 것도 전혀 꺼리지 않았다.”

음악평론가 현경채 씨(44)가 집필 중인 원고의 한 대목이다. 다음 달, 자신의 첫 저서가 될 《친근하고 쿨한 국악》(가제)을 펴내는 그녀는 ‘국악’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사람이다.

강은일 같은 대중과의 접점을 찾고 있는 국악 연주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책이 ‘박물관 속에 갇힌 국악을 풀어놓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다.

“민속 박물관이나 강단(講壇)에 갇혀 있는 국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의 준거를 마련하고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국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공식 직함은 음악평론가이지만 그녀는 방송 활동과 함께 학교 강의로 병행하고 있는 열정적인 국악 전도사이다. 그런데 이제 책까지 쓰고 있다.

“국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하면 보통 사물놀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사물놀이는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사실 국악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국악은 사실 질박하면서도 단아한 절제력을 갖추고 있는 음악이거든요. 이밖에도 국악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많이 접하면서 국악 전공자로서 일종의 자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악에 대한 일반인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출판평론가 김갑수 씨의 독려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국악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으로 이론과 작곡까지 내쳐 공부했다는 그녀가 말하는 국악의 매력은 ‘편안함’이다. “국악은 결코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요즘 자주 듣는 음악은 <수제천>이나 <전폐회문> 같은 궁중음악인데 지루한듯하면서도 마음을 붙잡아 매두는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현경채 씨는 자신의 책이 기존의 국악입문서나 국악개론서와는 아주 다른 성격의 책이 될 것이라고 귀띔한다. 그녀가 내민 구성안을 보니 책에 담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퓨전 요리점의 메뉴를 보는 것 같다. 목록에는 사계절, 요일, 색깔 등에 어울리는 국악, 〈봄 날은 간다〉, 〈로봇 태권브이〉, 〈누들 누드〉 등 영화 속에 쓰인 국악, 윤도현, 신해철, 윤상 등 대중가요에 쓰인 국악 등이 빼곡하게 메모되어 있다.



그녀는 원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수 윤상, 김동률 등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술가들이 자기 것을 찾다보면 결국 토속적인 세계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술을 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수목화로 돌아오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국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것에는 하나의 자력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집필된 것은 전체 원고의 50퍼센트 선. 2월중으로 원고를 마감하고 3월중 출간할 예정이다. 기자가 잠시 따지를 걸어보았다. “단지 우리 것이니까, 국악을 알아야 하고 즐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런 낡은 명분으로 국악을 강요하면 대중과 국악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뿐이에요. 국악 자체 속에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이론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국악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야 국악과 일상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가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녀가 국악의 형식에 파격적인 실험을 가하고 있는 임동창이나 강은일, 타악기 그룹 ‘공명’의 작업을 선구적이고 진취적인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다. 그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국악 사랑 카페(cafe.daum.net/kyungchelove)를 운영하면서 국악의 커뮤니티를 실현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3월이면 국악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가이드북이 우리의 도서목록에 포함될 듯하다. 그의 책을 펴낼 출판사는 200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을 펴낸 ‘다른우리’. 국악을 사랑하는 한 열정어린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기자의 컷가에는 가야금 산조 한가락이 들려오는 듯싶었다. **한글**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현경채 씨는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가야금을 전공했고 서울음대 국악과에서 이론과 작곡을 전공했다. 이어 대만에 유학, 중국음악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현재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집필과 기고, 방송과 강의 등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